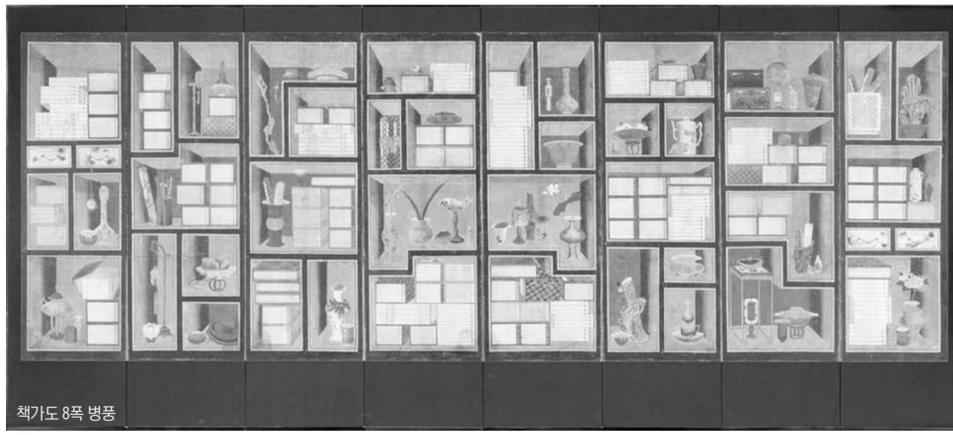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집 '책가도·문방도' 발간



책가도,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높게 쌓아올린 책더미와 서재의 여러 일상용품...



책가도 8쪽 병풍

책 가까이 한 선조들 생활상 들여다볼까

궁중화원 이형록 그림 등 주요자료 27점 분석 한국 회화사 흐름 속 박물관 소장품 특성 살펴

책가도와 문방도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집이 발간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 생활용구로써 가치가 높은 책가도 4점과 문방도 23점 총 27점을 선별해 수록한 소장품 자료집 '책가도·문방도'를 발간했다.



돌잔치 이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사진

둘째 장은 책가도의 기원과 형식, 용도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박물관 소장 책가도와 문방도의 종류와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소장품 '책가도 8쪽 병풍'을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해 조선식으로 변용된 투시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했다. 책가도에 자주 등장하는 서랍과 문갑의 표현, 책가도 속 도장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분석했다.

하고픈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책과 학문을 중요시했던 풍조는 책과 고동기(古銅器), 도자기 등을 수집하고 즐기는 문방정원(文房淸苑) 취미의 확산을 가져왔다. 선비들의 방에 책가도와 문방도가 장식됐고, 민간에서는 아이가 책과 문방구를 가까이하는 선비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돌잔치 상에 문방도를 돌렸다.

원로작가 손형섭 제3수필집 '아무려면 어때랴' 출간

문예지·신문 등 발표 작품 40편 한데 모아 원로 작가 정인 손형섭(사진)의 제3수필집 '아무려면 어때랴' (서석 펴)가 출간됐다. 이번 수필집은 그동안 문예지와 일간지, 대학신문, 잡지 등에 발표했던 작품 중 40편을 한데 모아 10편씩 4부로 나눠 수록했다.



1부 '고향길을 거닐며'에는 문예지에 쓴 16편 작품과 잡지에 발표된 3편 글 중 고든 10편을 실었다. 저자의 지나온 삶에 관한 이야기다. 2부 '경제만 있고 도덕은 없고'에는 일간

지에 기고했던 21편 칼럼 중 10편을 골라 담았다. 대부분 경제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3부 '대학의 변화와 개혁'에는 대학신문에 게재된 23편 칼럼 중 저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글 5편과 그간 발표한 격려사 42편 가운데 남기고 싶은 글 5편을 골라 수록했다. 4부 '산상수훈과 경제윤리'에는 저자가 다니고 있는 광주 벨레교회에서 펴낸 '벨레미

동하고 있다. 2007년 정년퇴임 후 문명란 시인 서은 문학연구소에서 시 창작을 수강하며 늦깎이로 창작의 길에 들어선 그는 75세인 2017년 '문학예술'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을, 가을호에 수필 부문 신인상을 각각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왕성한 창작욕으로 시집 '별빛', '파도', '만주', '겨울 나그네' 등 4편과 수필집 '삶의 흔적', '추억' 등 2권을 발간했다. 82세인 지난해에는 '월간문학' 가을호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책



▲마은의 가게=이서수 저자 시대의 부조리를 깨닫는 예리한 시선,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와 문장으로 청년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이서수의 세 번째 장편소설 '마은의 가게'가 출간됐다. 어디선가 마주쳤을 법한 인물들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읽히면서 보편의 정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고립된 빈곤=박유리 저자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의 진상 그리고 피해자와 생존자의 투쟁을 기록해 온 저널리스트 박유리 작가가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고립된 빈곤'을 발간했다. 피해자, 수용소 설계자,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체제, 생존자의 투쟁, 정치권 반응과 형제복지원의 '형제들'(유사 사건)을 충분히 살피므로써 사건에 대한 표피적인 정보 아래의 사람과 사회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야기 미술관=안창원 저자 독보적인 미술계 스토리텔러 이상용 저자는 '이야기 미술관'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불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림 속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나간다. 저자는 '읽는 그림(고전주의)'을 통해 화가의 생애, 작품 탄생 배경, 그림 속 비하인드를 보여주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품 속 인생을 들려준다.



▲오늘부터 나는 생애 시민입니다=공운회 저자 이 책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8가지 환경 문제를 선정해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긴밀성을 다각도로 보여준 뒤,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는 청소년 교양서다. 기존의 환경 관련 교양서들과 달리 '생태 중심주의'와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편, 일상적 실천뿐 아니라 대사회적 행동을 강조한다.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Includes website URL, QR code, and regional subscription numbers.